

장준석의 생애와 비평 세계

최명표*

|| 차례 ||

- I. 서론
- II. ‘비린내 나는 맑시스트’의 원칙론적 비평
- III. 결론

【국문초록】

장준석(1903~1962)은 아직까지도 카프의 강경파 정도로 알려졌을 뿐, 생애조차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평가이다. 본고는 그의 전기적 생애를 복원하여 학계에 보고하고, 비평적 특질을 밝힌 글이다. 그는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나 일본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는 유학하기 전에 고향의 청년단체에서 두루 활약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공산주의에 관심을 가졌으며, 도쿄를 중심으로 ‘비린내 나는 맑시스트’를 자처하며 활약하였다. 그의 비평 활동은 이 기간에 한정되었다. 그것도 방향전환론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기간은 짧았다. 그의 평문들은 신간회 도쿄지부 간사이자 카프 도쿄지부 집행위원장이라는 직함에 어울리는 원칙론적 발언이었다. 그는 상부의 지침을 충실히 좇았고, 방향전환론에 반대하는 논자들을 향해 날선 반론을 제기하고 상대를 격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의 상대는 아니키스트는 물론, 카프 내의 동지들을 망라하였다. 그만큼 그의 논리는 카프 소장파의 견해를 대리하고 있어서 카프 내의 헤게모니 갈등 양상을 살피기에 알맞다. 따라서 장준석의 비평적 특질은 융통성이 없는 교조적 논리로 일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장준석, 카프(KAPF), ‘비린내 나는 맑시스트’, 방향전환론, 교조적 비평

* 전북대학교

I. 서론

한국의 근대 작가 중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들이 아직도 상당하다. 근대문학이 시작된 지 겨우 100년이 넘었을 뿐인데, 이름만 남아 있는 작가들을 만날 적에 느끼는 당혹감은 마땅히 해결하기 힘들다. 다들 인정하다시피, 그것의 가장 큰 요인은 문학 외적 환경으로부터 기인한다. 식민지시대를 지나 맞이한 해방정국의 소란한 판세는 동족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사상적 잣대와 이념적 심급이 작가 연구를 가로막는 첫째 요인이 되고 말았다. 특히 일제에게 대항할 이념적 수단으로 사회주의를 수용한 작가들은 분단시대의 전개와 함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그 외중에서 남한에 남은 작가는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거나, 과거의 행적을 소거하거나, 문학판과 거리를 두고 은거할 수밖에 없었다. 다들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 터이지만, 그 결과로 작가들의 실존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구 방식은 지양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시대에 문학에 종사하느라 신명을 바친 작가들의 연구는 문단 권력싸움에서 이겼거나, 무수한 의혹을 감춘 채 공식적 직함을 차지한 명망가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 요인들은 한국의 근대문학사에서 전기적 생애조차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방치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더욱이 전라북도처럼 사회주의 세력들이 변혁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의 작가들 중에는 발자취를 숨긴 경우가 많았다. 전북 지역은 고래로 소문난 곡창지대라서 일제의 수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잦은 소작쟁의가 항사로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탓에 일찍부터 사회주의 세력권에 포섭되었고, 지역의 유식자들은 대부분 친사회주의적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작가들은 절로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형상화하게 되었고, 해방 후에 전개된 정치관의 영향에 따라 그것이 과오인

양 작용되어 은거할 수밖에 없었다. 현 시점에서든 전북 출신 작가들 중에 소상한 이력을 복원하기 힘든 사례가 많은 까닭이다. 이 점은 전북지역문학사를 온전히 서술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이다. 그 중에서 비평가 장준석이 대표적이다.

장준석은 아직까지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강경파 비평가로 알려졌을 뿐, 생애조차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한국근대문학비평사에서 단편적으로 거명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장준석의 생애를 가능한 선에서 복원하여 학계에 보고하고, 그의 비평세계를 점검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그 동안 공백으로 남았던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계열의 한 비평가를 문학사의 전면으로 호명하여 근대문예비평사의 결락 부위를 보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북지역 비평사에서 차지하게 될 그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터이다. 아울러 장준석과 함께 활약한 여러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확인하게 될 터이므로, 사상사적 흐름도 부수적으로 조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점은 지역문학 연구가 사회사적 영향력을 의식하며 진행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II. ‘비린내 나는 맑시스트’의 원칙론적 비평

1. 전기적 생애

천원 장준석(天圓 張準錫, 1903~1962)은 전라북도 김제군 청하면 동지산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서울의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낙향하여 일본으로 떠나기 전까지 고향의 청년단체에서 활약하였다.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

장한 단체는 1925년 6월 20일 김제신흥청년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김제독서구락부이다.¹⁾ 그는 이 단체의 의장을 맡아 김제천도교당에서 1925년 7월 25일부터 3일간 주민들을 위해 ‘제1회 하기 학술강좌’를 열었다.²⁾ 김병일³⁾의 사회로 진행된 강좌의 내용은 일본 주오대학에 재학 중이던 김광수⁴⁾의 ‘사회학설의 변천’, 와세다대학에 재학 중이던 온낙중⁵⁾의 ‘유물사관 해설’이었다. 세 사람 모두 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회주의 운동가이다. 강사의 면모나 내용으로 보아 강좌를 개설한 장준석의 사상적 성향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또 당시 김제 지역 청년들의 행동반경을 추단하는 것도 힘들지 않다.

1925년에 접어들어 김제 지역에는 중학교를 세우려는 모임이 일어났다. 1925년 9월 13일 창립한 김제중학기성회⁶⁾는 군민들의 소망을 모아 군민대회를 열고, 각 면마다 지부를 결성하며 세를 결집하였다. 장준석은 11월 선전대원으로 뽑혀 각 면을 순회하였고⁷⁾, 12월에는 청하면민대회에서 그 회의 청하지부 재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⁸⁾ 당시 『조선일보』 김제지국장으로서 재직하던 장준석은 같은 달 『동아일보』 김제지국에서 김제기자단을 출범시켰다.⁹⁾ 12월 20일 그는 지역 청년단체의 통합에도 힘써 김제청년회, 공덕

1) 이날 선출된 임원은 의장 장준석, 서기 조판오, 위원 김병일, 이봉길, 김종섭 등이다. (『동아일보』, 1925. 6. 24)

2) 『동아일보』, 1925. 7. 30

3) 김병일에 관해서는 강만길·성대경 편,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p.74 참조.

4) 김광수에 관해서는 강만길·성대경 편, 위의 책, p.45 참조.

5) 온낙중에 관해서는 강만길·성대경 편, 위의 책, p.290 참조.

6) 『동아일보』, 1925. 9. 17

7) 김제중학기성회에서 선출한 각 면 순회대원은 장준석, 조홍민, 조기방, 최재철, 이종규, 조선성, 온낙균, 조이철, 이봉길, 곽탁, 조판오, 고용준, 조동건, 조종태 등이다. (『시대일보』, 1925. 11. 24)

8) 『시대일보』, 1925. 12. 23

청년회, 부용친목회를 김제청년연맹으로 창립시키는 준비위원을 맡았다.¹⁰⁾

장준석은 김제 출신 유학생들을 규합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는 1925년 6월 25일 김제읍내 만화루에서 김제학우회를 발족시키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학우회는 김제에서 출향하여 중등학교 이상에 다니는 2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호 연락과 친목 도모를 위해 기관지 『김제학보』¹¹⁾를 발간하기로 결정했다.¹²⁾ 학우회는 1927년 8월 1일 제1회 정기총회를 열고, 재경김제학우회가 만경과와 금구파로 이분되어 갈등을 표출하자, 조사위원장 김종기¹³⁾와 조사위원 장준석을 대표로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¹⁴⁾ 장준석은 그달 16일 만화루에서 윤계술¹⁵⁾, 김윤기¹⁶⁾, 김종기 등과 강연회를 열었다.¹⁷⁾ 유학생들은 1928년 8월 5일 김제합동노동조합회관에서 열린 제3회 정기총회에서 도쿄, 서울, 전주 지부의 설치를 결정했

- 9) 1925년 11월 29일 창립한 김제기자단 집행위원장은 장준석(『조선일보』), 조판오(『동아일보』), 고용준(『시대일보』) 등이다.(『시대일보』, 1925. 12. 10)
- 10) 창립준비위원은 장준석 외에 조재술, 정석술, 조이철, 문중현, 고용준, 조순식, 차상직, 조기호, 이석목, 이시현 등이다.(『시대일보』, 1925. 12. 23)
- 11) 『김제학보』는 일본 유학 중이던 장준석이 편집을 담당했다. 회에서는 김제 출신의 중학 이상 졸업자들에게 회비용 원고를 '일본 동경 삼기정 일본대학 문과 내 장준석에게' 보내도록 안내하였다.(『동아일보』, 1927. 2. 7)
- 12) 『동아일보』, 1925. 8. 27
- 13) 김종기(金瓏基)는 김제 출신으로, 1932년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동아일보』, 1932. 2. 5) 그는 1927년 8월 1일 열린 김제학우회 정기총회에서 장준석에 이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동아일보』, 1927. 8. 4)
- 14) 『중외일보』, 1927. 8. 4
- 15) 윤계술(芸齋 尹濟述, 1904~1986)은 김제 백산 출신으로, 1929년 도쿄고등사범학교 영문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해방 후에 이리 남성중고등학교 교장과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 16) 김윤기(金允基)는 김제 출신으로, 일본 와세다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기사로 근무했다. 그는 해방 후에 교통부장관을 지냈다.
- 17) 『중외일보』, 1925. 8. 13

다.¹⁸⁾ 회에서는 강연회를 계속하여 김제좌에서 열기로 했으나, 일경이 반대하자 김종기와 장준석이 교섭위원으로 나서 절충을 벌였다.¹⁹⁾ 장준석은 소년운동에도 관여하였다.²⁰⁾

그 무렵에 전라북도의 운동권은 공산주의 계열에서 장악하고 있었다. 서울청년회는 정노식²¹⁾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김제 출신 인사들과 일찍부터 관련을 맺었다. 또 김제의 김병일, 이봉길²²⁾, 조기승²³⁾ 등은 1925년 10월 서울에서 출범한 사상단체 전진회의 지도급 인사였다.²⁴⁾ 전진회는 그 해 4월 조선공산당의 결성 과정에서 배제된 서울과의 일원들이 회집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같은 서울청년회의 유학파인 북풍회와 대비되는 국내파 세력들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이 두 차례의 탄압에 몰려 세력이 약화되자, 북풍회는 도쿄 일월회파의 안광천 등을 합세시켜 이른바 정우회 선언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방향전환론을 제기하였다. 그것을 전진회는 개량주의적 우경론이라고 배척하고, 1927년 신간회에 맞서 단일무산계급 정당의 출현을 기치로 5월에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창립 모임조차 금지되며 세력의 결집에 실패하더니, 정우회 계열에서 소위 ML당(제3차 공산당)을 결성하자 전진회는 크게 쇠퇴하고 말았다. 이러한 세력 분포를 감안하면, 김제 지역의 운동권은 서울청년회, 전진회 등이 좌우하고 있었다. 그것은 장준석의 사상 훈련과 교우관계에 깊이 영향

18) 이날 선출된 임원은 위원장 김종기, 서무부 위원 정화준·송관술, 출판부 위원 장준석·김영자 등이다. (『중외일보』, 1928. 8. 10) 송관술은 1926년 전주고보를 졸업하고, 1932년 일본 호세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동아일보』, 1932. 2. 5)

19) 『동아일보』, 1928. 8. 7

20) 장준석은 조기승이 운영하던 벽성소년단의 고문을 맡았다. (『동아일보』, 1925. 8. 18)

21) 정노식에 관해서는 강만길·성대경 편, 앞의 책, pp.429-430 참조.

22) 이봉길에 관해서는 강만길·성대경 편, 앞의 책, p.337 참조.

23) 조기승에 관해서는 강만길·성대경 편, 위의 책, pp.450-451 참조.

24)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6, p.127.

을 끼쳤을 터이다. 그는 1925년 12월 동료들과 송별연을 마치고²⁵⁾, 이듬해 3월 일본으로 유학길에 올랐다.²⁶⁾

도일 후에 장준석은 “재건고려공산청년회 일본부에서 선전 활동에 종사”²⁷⁾하였다. 그 흔적은 1925년 도쿄의 조선공산당 재일본본부에서 설립한 인쇄소 동성사²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준석은 동성사에서 발행한 잡지 『현계단』의 사장을 지냈다. 동성사는 『대중신문』 등을 발행한 곳으로, 1928년 8월 1일 창간 당시에 『현계단』의 편집 발행 겸 인쇄인은 강영순²⁹⁾이었다.³⁰⁾ 그는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북부야채이까 책임자를 지낸 인물로, 1928년 8월 국치일 기념 투쟁에 참가했다가 일경에 피체되었다.³¹⁾ 이와 관련하여 1929년 9월 “동경에서 발간되는 잡지 현계단은 지난 사월 오일 데 이권 데일호를 간행하자 당국으로부터 발매 금지를 당하는 동시에 사장 장준석 씨가 신문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잡지 사에서는 다시 조직을 노동자농민신문사로 변경하여 한달에 두 번씩 기관지를 발행하리라더라”³²⁾는 기사로 미루건대, 강영순이 피체되는 통에 장준석이 『현계단』의 사장으로 등재된 것이다.

둘째, 장준석의 친구 윤제술의 회고담에서 김제 출신 유학생들과 동성사

25) 『조선일보』, 1925. 12. 10

26) 『조선일보』, 1926. 3. 3

27) 동선희, 『식민 권력과 조선인 지역 유력자』, 선인, 2011, p.273.

28) 동성사(同聲社)의 상무이사 김세연은 속칭 ML당 책임비서를 지냈고, 상무이사 하필원은 1927년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를 역임했으며, 이사 박낙중은 1927년 4월 조선공산당 재일본본부를 조직하고 책임비서를 지냈다.

29) 강영순(姜永淳)은 고려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을 지냈다.(전명혁,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 연구』, 선인, 2006, p.146.)

30) 최덕교 편, 『한국잡지백년』 2, 현암사, 2005, p.356.

31) 강만길·성대경 편,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p.15.

32) 『동아일보』, 1929. 9. 13

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고우 김상기를 추도하면서 “동빈과는 『동성(同聲)』이라는 문학 동우회지를 함께 내기도 했다. 동빈이 썼던 『어머니의 묘를 찾아서』라는 시가 찌르르 내 감정을 적셨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다. 나는 그때 『마장(馬場)가의 무덤』이라는 시를 발표했던가 한다.”³³⁾ 고 슬회한 바 있다. 그러나 김상기가 발표한 시제목은 『어머니 무덤』이고, 발표지는 『동성』이 아니라 『개척』 창간호였다.³⁴⁾ 그의 기억착오는 『개척』의 인쇄소가 동성사였던 사정에서 비롯된 듯하다. 윤제술의 혼동 속에 동성사와 김제 출신 유학생들과의 친분이 밝혀진 셈이다.

장준석의 행보와 관련하여 주목할 인물은 이복만이다. 둘의 행동반경은 상당 부분 중첩될 뿐더러, 일관되게 방향전환을 부르짖는 비평적 논조도 비슷하다. 이복만은 고경흠이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위한 도모책으로 마련한 ML당의 간부로 안광천, 홍양명 등과 함께 움직였다. 장준석은 이복만의 도움으로 여러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먼저 그는 1927년 12월 신간회 도교지회의 출판부 간사로 선출되었고³⁵⁾, 1928년 1월 25일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도교지부의 임시총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³⁶⁾ 이어서 그는 1월 27일 신간회 도교지회회관에서 재동경조선청년연맹, 재일본조선노동총연맹, 동경조선노동조합,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신간회 도교지회, 근우회 동경지부, 신흥과학연구회,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도교지부가 합동하여 출범시킨 삼총해금관동동맹의 선전부 위원으로 선출되었다.³⁷⁾ 2월 22일에 그는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본부의 중앙위원회에

33) 윤제술, 『동빈과 나』, 『윤재선집』 (상), 성지사, 1989, p.393.

34) 최덕교 편, 『한국잡지백년』 1, 현암사, 2005, p.227.

35) 『중외일보』, 1927. 12. 30

36) 『중외일보』, 1928. 2. 3

37) 『중외일보』, 1928. 2. 4

서 중앙위원으로 보선되었다.³⁸⁾ 그리고 장준석은 1928년 7월 『국계무산자 통신』을 발행하여 식민지에 공산주의를 선전한 혐의로 도쿄에서 일경에 체포되었다.³⁹⁾ 그 뒤로 장준석은 공산주의 운동권으로부터 멀어졌다. 그 무렵에 일경이 작성한 조선인 용의자 명부에 ‘ML과 및 서울과 공산당사건 관계자로 도주 중’⁴⁰⁾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면, 그는 소위 전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공산당 일본본부의 간부로 활동한 그가 수형생활조차 하지 않고 순탄히 대학을 졸업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일본을 떠난 뒤로 비평 활동은 물론,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금하고 일제에 협력하며 살아간 사실로도 추측 가능하다.

장준석은 1931년 니혼대학 문과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온 후, 생업에 종사할 뿐 일체의 문학 활동을 삼갔다. 그해 9월 그는 지세상회(志世商會)를 세우고 정미업을 개시하여 상당한 이재를 축적하였다. 그가 1921년 향리의 야학용 교지를 회사한 것이나⁴¹⁾, 유학 사실로 보아 그의 집안은 누대에 걸친 재산가였던 듯하다. 일제의 평판에 의하면, 그는 “1936년 1월 현재 농장에서 연간 500석 이상의 수확을 올리고, 정미소에서는 종업원 50~60명에, 연간 생산고 3만뽕(가마니: 인용자)에, 거래액 30만원에 달함. 공공사업에도 진력하여 면협의원, 학교 평의원, 학교후원회 회장, 수방단 부장, 곡물개량조합 평의원, 만경금융조합 평의원 등으로 활동 중”⁴²⁾인 청년실업가였다.⁴³⁾ 그는 32세 되던 1936년 2월 8일 군산공회당에서 전남 영광

38) 『중외일보』, 1928. 2. 25

39) 『중외일보』, 1928. 7. 13

40) 국사편찬위원회.

41) 『동아일보』, 1922. 10. 19

42) 『조선의 인물과 사업: 호남편』 제1집; 국사편찬위원회.

43) 장준석의 「국민 구제 대책」(『동아일보』, 1932. 7. 8)은 당시 그의 입지를 명징하게 증명하는 글이다.

출신 노함인(魯咸仁, 26세)과 혼례를 치렀다.⁴⁴⁾ 장준석은 1935년 청하면협회의 회원⁴⁵⁾, 청하면 학교평의원⁴⁶⁾을 지냈고, 1937년과 1941년에 거푸 전라북도 평의원에 당선되었다.⁴⁷⁾ 그는 1941년 김제군민들에게 도의원 당선 사례를 하면서 ‘吉田長榮(舊名 張準錫)’이라고 광고하여 창씨개명한 줄 알렸다.⁴⁸⁾

해방 후 장준석은 향우 윤제술의 도움을 받아 1962년 3월 이리 남성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병사하였다. 이처럼 장준석은 고향에 돌아온 뒤에는 ‘비린내 나는 맑시스트’로 활약했던 과거 행적을 철저히 지우고 살았다. 그로서는 해방정국으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념 대결 속에서 공산주의 이력과 부일 경력이라는 과오를 감추기 위해 은거했을 터이다. 그런 탓에 그의 행각은 드러나지 않은 채 비평사에서 단편적으로 이름만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장준석은 1927년 7월 『개척』 제4호를 등사판에서 활판으로 바꾸면서 독자들에게 ‘조선 전라북도 김제군 청하면 동지산리 장준석’ 앞으로 투고하도록 안내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런 이유로 비교적 최근까지 생존한 장준석의 전기적 생애조차 추적되지 않은 것은 유명작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편벽된 연구 풍토가 초래한 허물이다. 게다가 그가 재직했던 남성학교가 호남의 사립 명문이고, 그 학교를 나온 작가들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은거를 둘러싼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44) 『매일신보』, 1936. 2. 21

45) 『매일신보』, 1935. 5. 26

46) 『매일신보』, 1935. 7. 6

47) 『매일신보』, 1937. 5. 12

48) 『매일신보』, 1941. 5. 13

2. 교조적 방향전환론

장준석의 비평 활동은 체일 기간 동안에 국한되었다. 그의 비평적 출발은 동인지 『개척』이었다.⁴⁹⁾ 그 동안 이 잡지는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동경의 유학생들로서, 장준석·윤제술·김상기⁵⁰⁾·김종기·유기현⁵¹⁾ 등을 중심으로”⁵²⁾ 만든 팜플렛 형태의 등사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49) 『개척』은 아직까지 전권이 소개되지 않았다. 참고로 『개척』 창간호의 목차는 ‘권두언’ 「등년추! 독서추! 우하추!」, ‘문예평론’ 장준석, 「창작비평의 기준」/ 홍효민, 「조선문에 운동의 신진로」/ 한식, 「예술의 위장을 탈출하여」 ‘시’ 동빈, 「어머니 무덤」/ 천원, 「가을비」/ 윤제술, 「월하」/ 장도순, 「행복」/ 진우촌, 「소곡이편」/ 김병순, 「해녀의 노래」/ 육형중, 「일에 가일...」/ 한정동, 「감으레 밤비」/ 허문일, 「언니 생각」 ‘소설’ 윤제술, 「박씨의 마음」/ 장준석, 「농군」/ 김상기, 「여직공」/ 조중곤, 「대청결」/ 「가가날을 맞으며」, 「루나찰스키소전」, 「신어해설」 등이다.(최덕교 편, 『한국잡지백년』 1, 현암사, 2005, p.227.) 『개척』 제4호의 목차는 ‘권두언’ 「본지 혁신의 의의」, ‘논문’ 장준석, 「방향전환기에 입각한 문예가의 직능」/ 김종기 「당면한 학생의 고민」/ 홍효민, 「문예시평」/ 한식, 「현계단의 예술이란 무엇?」/ 옥산학인 역, 예술개론 (속)/ 유방 역, 「근대적 자본주의의 모순(부하란)」/ 일 농민, 「노동예술화의 농악을 회상하며」 ‘수필’ 김상기, 「H군의 죽음」, ‘소설’ Aurice Level 작, 김진 역, 「출가」/ 장준석, 「거듭남」/ 조중곤, 「동무의 편지」, 「희곡’ Oscar Wilde 작 CYS역, 「살로메 (속)」 ‘시’ 동빈, 「밤비」/ 천원, 「사선, 처녀의 찬미」/ 정은찬, 「나의 조각은 부스러졌다」/ 유도순, 「웃음」/ 박봉이, 「생? 사?」/ 이학인, 「『네즈』 산속에서」/ 곡선미, 「나의 천사」/ H생, 「비오는 밤」 ‘동요’ 한정동, 「구름」/ 장영석, 「벗님의 가슴에」/ 최한생, 「한 쌍의 체비」 ‘잡문’ 윤제술, 「만담」/ 일 기자, 「조박잡관」/ 세묘생, 「금산사의 자랑」, 「편집어필」 등이다.(최덕교 편, 위의 책, pp.228-229.)

50) 김상기(東濱 金庠基, 1901~1977)는 김제 출신의 사학자로, 1926년 보성고보를 마치고 1931년 일본 와세다대학 사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한국 동양사학의 기반을 닦은 석학이다. 그는 동학란을 동학혁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봉준이 첫 승을 거둔 정읍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을 세우는 등 애항심이 남달랐다. 그러나 동학혁명의 모의 단계에서 작성되었다는 사발통문을 감정하고 나서 주동자들의 것이 아니라 후세인들의 조작이라고 단언하는 등, 그는 학자적 엄격성을 잃지 않았다.

51) 유기현(柳基賢)은 전북 출신으로, 1932년 일본 주오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동아일보』, 1932. 2. 5)

거명한 인물들은 모두 김제 출신들이고, 장준석을 제외하고는 사회주의운동 사나 식민지의 청년운동권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개척』의 필자 중에는 아동문학가 한정동이나 진우촌, 오천석처럼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동경의 유학생들’로 분류하기에 어려운 인물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 책은 도쿄의 유학생들이 발간한 소박한 동인지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도일 전까지 변변한 문필 활동을 하지 않았던 장준석은 체류한지 1년 만에 이북만의 지원에 힘입어 소장평론가로 문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가 『개척』을 발판으로 비평 인맥을 형성하던 시기는 식민지 사회에서 방향전환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였다. 1927년 10월 2일 소위 『제3전선』파의 공산당원 이북만은 장준석을 비롯한 『개척』파를 포섭하여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도쿄지부를 결성하였다. 이북만은 장준석을 문학부장에 보임하고, 『개척』파와 『제3전선』파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기관지 『예술운동』을 발간하며 도쿄지부의 역량을 드러내었다. 장준석은 『예술운동』 창간호 ‘러시아혁명 특집’에 게재한 「10월 혁명과 예술」에서 앞으로 전개될 무산계급 문예운동선상에서 “혁명 러시아의 예술이 적지 안흔 거울이 될 것”⁵²⁾으로 전망하였다. 이어서 그가 『예술운동』 제2호(1929. 1)에 발표한 「일본 프로예술전국대회를 보고」도 제목처럼 보고문 성격에 지나지 않아서 논리를 포착하기에 부적당하다. 『예술운동』이 도쿄에 체류하던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맹원들의 문학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낸 기관지였으므로, 장준석에게 할당된 원고들은 본격적인 평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준석은 신간회 간부답게 방향전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간부로서 동맹의 지침을 준수하는 발언으로 일관

52)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p.134.

53) 장준석, 「10월 혁명과 예술」, 『예술운동』 창간호, 1927. 11.

하였다. 그의 평론 「방향전환기에 입각한 문예가의 직능」은 비평적 입각점에 해당한다. 주지하다시피, 방향전환론은 박영희가 「문예운동의 방향전환」(『조선지광』, 1927. 4), 「문예운동의 목적의식론」(『조선지광』, 1927. 7) 등에서 선편을 쥐고 제창한 것이다. 그것은 사회운동의 방향전환과 관련한 것이지만,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여러 논자들이 참여하면서 문학사적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그 무렵에 장준석은 한민족이 정치적으로 피압박계급이고 경제적으로 피착취계급이라는 인식 위에서 방향전환론을 전개한다. 그는 기존의 운동이 현실의 기초 위에 뿌리박은 대중적 조직 운동이 되지 못하고 분산적·파벌적 운동에 불과하였다고 진단하고, 그에 따라 문예운동도 현실적이고 전면적인 이론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과거의 작품 중에서 현재와 이후의 대중에게 기여를 주지 못한 작품은 그것이 비록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도 수음적·이편적 작품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작가들에게 동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대중을 기만하지 말라고 호소한다.

금후로 우리가 출산할 작품은 현 운동의 진전과 가티 먼저 정치투쟁의 제재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아니 그 제재를 취급하는 작가의 현 운동계급의 관점, 의식, 환언하면 목적의식성을 가져야 한다. 즉 투쟁 운동을 위한 가장 효력있는 작품을 산출하기에 목적하지 안하면 안 된다. 그래 대중은 이 목적의식성에서 산출하는 작품을 가뭇의 비가티 갈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의식성에서 배태된 작품 이외에는 현재 대중에게 하등의 의미없는 죽은 작품이라고 사유할 수밖게 없다. 우리의 문예가는 언제나 이 구극의 목적을 망각하지 말라고 프롤레타리아의 관념을 선전하며 촉진하여 나가지 안하면 안 된다. …(중략)…

우리의 목적은 여하히 하여서 사회주의적 문예를 건설함에 잇는 것이 아니라 여하히 하여서 역사의 각 순간에 출현되는 무산계급 해방운동에 우리의 임무를 구체적 문제를 문예운동의 한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계급의 생활상 즉 파탄, 혼란, 소요가 있고 유희와 절망도 업지 않을 것이다. 또한 광명과 환희와 건설이 있을 그 사회의 진실상의 바로 비추지 안아서는 이 역시 하등의 가치를 대중에게 기여하지 못한다.⁵⁴⁾

인용문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장준석의 요지는 방향전환에 따른 목적의식성의 강조이다. 그는 정치투쟁으로 방향이 전환된 운동의 단계를 좇아 ‘정치투쟁의 제재를 선택’하여 ‘목적의식성에서 산출하는 작품’을 생산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그것은 작가들이 무산대중의 현실적 조건을 냉철히 인식하고 ‘푸로레타리아의 관념을 선전하며 촉진’하려는 ‘구극의 목적’을 망각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작가는 투사의 일인이 되어 현 계급의 생활을 구체화한 예술행위로 대중에게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무산대중에게 세계 변혁의 의지를 고양하는 목적의식성이고 세계에 대한 감각적 이해이다. 그러나 장준석은 작품의 형식과 기교를 전연히 부인하지 않는다. 장준석은 ‘우리의 목적은 여하히 하여서 사회주의적 문예를 건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하히 하여서 역사의 각 순간에 출현되는 무산계급 해방운동에 우리의 임무를 구체적 문제를 문예운동의 한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곧, 그는 문예에 대한 정치의 우위성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현계단에 잇서 조선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실천적 임무는 무엇이냐? (1-19)」(『중외일보』, 1928. 5. 18-6. 6)는 장준석의 비평적 논리를 개진한 장문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도 교지부의 집행위원장이라는 지위에 입각하여 이 글은 삭제된 분량이 워낙 많아서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일체의 재래 예술과 사이비 무산예술을 일축함’이란 부제가 시사하듯, 장준석의 비평이 지

54) 장준석, 「방향전환기에 입각한 문예가의 직능」, 『개척』, 1927. 7.

향하는 바를 추출하는 단계에서 필독되어야 한다. 또한 장차 전개될 문학 대중화론의 단초를 언급하고 있어서 그의 비평 세계를 조감하는 과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평문이다. 그는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당면 문제가 예술을 프롤레타리아계급에게 어떻게 침투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모든 무기의 예술-연극, 포스타-시, 소설 등등을 가지고 공장으로 농촌으로 가지 안하면 안 된다.

올타! 우리 예술운동의 현계단에 잇서 문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자신의 예술을 노동자, 농업노동자에게 침투시키는데 잇지 안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에게 역사가 친절히 또 엄정히 명한 현계단의 실천적 xx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의 실천은 경건한 예술지상주의자에게 잇서서는 천국의 유희인 것이며 또 공식주의 내지 절충주의자에 잇서서는 위와 갖튼 현실적 xx만이 가능한 것이다.

나는 이상과 갖지 현계단의 조선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실천적 역할을 규정한다.⁵⁵⁾

작가들에게 장준석은 ‘모든 무기의 예술-연극, 포스타-시, 소설 등등을 가지고 공장으로 농촌으로 가지 안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예술양식이나 방법이 천편일률적이기보다는 독자 대중에게 알맞은 형태로 되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기관지 『예술운동』이 예술을 무기로 현상에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분이 지닌 특수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장준석의 문학대중화론은 비평 초기부터 주장한 바이다. 그의 일관된 논리는 김동환의 「신춘 잡감」을 읽고 제출한 평문 「왜 우리는 작품을 쉽게 쓰지 안하면 안 되는가」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그는

55) 장준석, 「현계단에 잇서 조선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실천적 임무는 무엇이나?」 (3), 『중외일보』, 1928. 5. 20.

“지금은 모든 운동이 광범한 대중 각층의 운동으로 변형함으로 그 민중이다 알아들을 그런 말을 써야 된다”⁵⁶⁾는 김동환의 의견에 원론적으로 동의 하되, 그 이유가 불분명한 점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막연히 쉽게 쓰지는 주장은 예술지상주의자의 관념론에 불과하다고 공박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찌케 이해하는가? 나는 결정적으로 말하거니와 우리의 프로레타리아예술은 프로레타리아트 자신의 예술이 되지 안하면 안 된다. 그러타! 그러므로 우리의 예술운동이 당면의 간절한 임무를 규정할 때 『대중 속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장으로 농촌으로』 이리케 『모든 ××× 대중의 속으로』라는 스로건을 세우고 그 실천적 ××를 진출하면서 있다.⁵⁷⁾

인용문은 “우리는 가자! 공장으로, 농촌으로, 광산으로, 어장으로 모든 ×××층으로 들어가자! 연극, 시, 소설, 포스타, 음악 등의 예술을 가지고 대중에게로 가자!”⁵⁸⁾던 바의 반복적 진술이다. 원래 문학대중화론은 “매스컴의 위축, KAPF 자체의 기관지 미확보, 엄격한 검열제도, 대중의 항배 등을 극복하려는 위장적 방법으로 제시”⁵⁹⁾되었다. 그에 비해서 장준석의 대중화론은 “예술의 본질로서의 민중성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치운동과의 관계에서 예술운동의 원칙과 임무를 천명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대중화를 논한 것”⁶⁰⁾이다. 장준석이 말하는 노동자 농민 대중을 위한 예술이란 노동자 농민의 예술이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푸쉬킨을 들었다. 그는 푸쉬킨이 신분의 한계를 이겨내고 러시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

56) 김동환, 『신춘 잡감』, 『조선지광』, 1928. 2.

57) 장준석, 『왜 우리는 작품을 쉽게 쓰지 안하면 안 되는가』, 『조선지광』, 1928. 5.

58) 장준석, 『신춘 소감』, 『조선일보』, 1928. 4. 15

59)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2, p.79.

60)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4, p.48.

유로 ‘승려 등의 궁정에서 유희하던 시를 떠나 인민의 생활의 중에서 시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찾아내고, 무산계급을 위한 문학작품은 ‘인민의 생활을 인민의 용어로 인민에게’ 보내주려는 언어의식이 필요한 줄 강조한다. 그에 입각하여 장준석은 아래의 세 부류들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데, 문단에 대한 인식을 헤아리기에 충분하다.

- A. 형이상학적 예술론=예술지상주의와 국민문학 운운의 호피를 쓴 것
- B. ×××(무정부: 인용자)주의 예술론=개인주의
- C. 사이버적 무산계급 예술론자=철저한 소부르주아지의 맹목적 추수자⁶¹⁾

먼저 장준석은 ‘형이상학적 예술론’으로 예술지상주의와 국민문학파를 들고, 전자를 대표하는 염상섭의 『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 (1-7)』(『동아일보』, 1928. 4. 10-17)를 검토하였다. 염상섭은 이 글에서 문예란 “인생의 반영인 까닭이오 또 누구나 인생을 널리 분명히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희망 공상하는 일을 별개의 생활 형태에서 발견하면 유쾌하기 때문이오(또 누구나 자기의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은 타인에게 알리어 공명을 얻고저 하는 표현욕이 있기 때문이다)”⁶²⁾고 말하는 한편, 부르주아군과 준부르주아군이나 프롤레타리아군은 현실의 한 점에 집착하여 인생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말하자면, 염상섭의 의견은 고유한 개성론을 입론해 가는 도중에서 제출된 것이다. 장준석은 그것을 현실적 문제와 유리되어 조선을 자살시키려는 사지에 민중을 몰아넣는 유미주의자의 주장이라고 혹평하면서도, 비판의 상당 부분을 염상섭보다는 양주동에게 할애하였다.

61) 장준석, 『현재단에 잇서 조선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실천적 임무는 무엇이나?』 (5), 『중외일보』, 1928. 5. 22.

62) 염상섭, 『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 (7), 『동아일보』, 1928. 4. 17.

양주동의 「정묘 평론단 총관-국민문학과 무산문학의 제 문제를 검토 비판함 (1-16)」(『동아일보』, 1928. 1. 1-18)은 부제와 달리 ‘무산문학의 제 문제를 검토 비판’하는데 집중되어 있어서 스스로 부르주아 비평가의 의식을 노출시키고 말았다. 이에 대해 장준석은 국민문학과와의 양주동이 목적의 식론을 배경한 나머지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논리를 지녔다고 비판하였다. 장준석의 양주동에 대한 비판은 「괴이한 문예론-양주동 군을 박함 (1-6)」(『조선일보』, 1928. 2. 7-12)에서도 계속되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양주동은 「병인문단개관」(『동광』, 1927. 1)에서 식민지적 특수성에 비추어 프로문학의 근본 정신을 존중한 바 있다. 그러는 한편 그는 「문단신세어」(『동아일보』, 1927. 1. 4)에서 신문학운동의 이상이 국민문학의 건설에 있다고 공언하면서 프로문학도 국민문학의 시대적 요소를 근거로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계속하여 「문단여시아관」(『신민』, 1927. 5-6)에서 문단을 나누어 제일 정통파는 순수문학과, 제이파는 전자의 반동으로 일어난 순수사회문학과 혹은 무산문학과, 제삼파는 이상 양파를 절충한 중간파로 삼분하였다. 말하자면 양주동은 자신이 속한 중간파가 앞의 두 유파에 대한 재반동으로 형성되었으므로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 삼분법을 차입한 것이다. 그의 주장은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창간한 『문예공론』 창간호에서 “민족 관념과 계급정신을 서로 배치한다고 보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과 이상에 대하여 아울러 색맹이다”(『문예공론』, 1929. 5)는 억견으로 이어졌다. 외적으로는 그의 발언이 합당한 듯 보이지만, 당시의 평단 실정을 고려하면 도리어 그의 주장이 ‘색맹’에 가깝다.

즉, 양주동이 국민문학과 계급문학의 병존과 연대를 강조한 것은 위선적이었다. 그의 자리는 “문학 자체 내에 포함된 사회적 의의를 경시하지는 않지만 문학 자체를 제일의적으로 보고 사회공과는 제이의적으로 보는 문학의 존재의의와 그 사회적 가치를 중심을 논의를 전개하여 문학 중심의

사회성을 인정하는 시대적 감각을 지닌 부르조아 문학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⁶³⁾고 보아야 맞다. 장준석은 그 점을 “본래 그는 철저한 소썬르조아로서 그에다 소위 인테리겐차계급의 일원임으로 즉 객관적 정세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무산계급의 운동의 진전이 우리 ××로 하여금 양심적 절충주의를 가지지 안흐면 안 되게 한 것이며 주관적으로는 영리한 우리 씨는 우리의 운동에 맹목적 추종이라도 하지 안흐면 자기의 존재-자칭 소위 문단 생활-가 위험함으로 ××(민족)문학에도 무산문학에도 동정하지 안흐면 안 되게 한 것이다”⁶⁴⁾라고 경쾌하게 정리하였다. 그 후에도 양주동의 주장이 계속되자 김기진⁶⁵⁾, 윤기정⁶⁶⁾, 임화⁶⁷⁾, 박영희⁶⁸⁾ 등이 차례로 비판 대열에 합류하였다.

둘째, 장준석은 아나키스트들을 “철저한 개인적 자유 본위의 신임 사회를 건설하려는 공상자”⁶⁹⁾라고 비난하면서 아나키즘과 마르크시즘의 논쟁에 개입한다. 그가 이 논전에 참여한 것은 뒤늦은 것이다. 알다시피, 이 논쟁은 박영희의 「투쟁기에 있는 문예비평가의 태도」(『조선지광』, 1927. 1)에 대한 무정부주의자 김화산의 반론으로 촉발되었다. 박영희로서는 원래 김기진과의 이른바 내용-형식 논쟁거리로 제출한 문건인데, 김화산이 「계급예술론의 신전개」(『조선문단』, 1927. 3)에서 반론의 근거로 삼는 통에 거꾸 논쟁에 휘말리고 말았다. 그러나 논쟁은 윤기정⁷⁰⁾, 조중근⁷¹⁾, 한설야⁷²⁾,

63) 전기철, 『한국현대문학비평입문』, 자유사상사, 1995, p.186.

64) 장준석, 「괴이한 문예론-양주동 군을 박함」(3), 『조선일보』, 1928. 2. 9.

65) 김기진, 「시평적 수언」, 『조선지광』, 1929. 6.

66) 윤기정, 「문단시언」, 『조선지광』, 1929. 8.

67) 임화, 「탁류에 항하야」, 『조선지광』, 1929. 8.

68) 박영희, 「부란의 외중에서」(1-4), 『조선일보』, 1929. 7. 20-15.

69) 장준석, 「현재단에 잇서 조선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실천적 임무는 무엇이나?」(10), 『중외일보』, 1928. 5. 28.

70) 윤기정, 「「계급예술의 신전개」를 넘고-김화산 씨에게」(1-6), 『조선일보』, 1927. 3.

임화⁷³⁾ 등, 소장 비평가들의 참진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점은 박영희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내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제3전선파가 지도부로 입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만치 아나키즘과 마르크시즘의 논쟁은 프로레타리아문학과 사회운동의 세력다툼은 물론,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내의 헤게모니를 쟁취하려는 다툼의 성격을 함의하고 있다. 일 대 다의 논진으로 포진된 형국이라서 이 논쟁의 승부는 예상된 바였다.⁷⁴⁾ 애초 러시아혁명에 고무되었던 아나키스트들은 소련이 프로레타리아 독재국가로 변모하자 볼셰비키들과의 합작을 거부하며 도처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던 아나키스트들은 신간회 도쿄지부의 결성식에 불참하고 반공 투쟁을 전개할 정도로,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었다.⁷⁵⁾ 그만치 아나키스트들의 마르크스주의자에 대한 공격 양상은 만만치 않았다.

아나키즘은 현실 사회를 일방으로는 계급사회라고 말하면서도 타방으로는 소위 자기 본능의 정체, 예하면 계급을 초월한 예술의 본질 즉 인간성의 예술 또는 정서의 예술을 무치(無恥)하게도 말한다. 결국 말하자면 그들은 이러케 이원적 견해를 가지고 일방으로는 ××적 대맹(大盲)을 토폐(吐吠)하면서도 일방으로는 유심론적 구할 수 없는 예술지상주의에 몰락하고 잇스며 또 그

25-30; 『상호비판과 이론 확립-영웅주의자의 망론을 일축함』 (1-5), 『조선일보』, 1927. 6. 15-20.

71) 조중근, 『비뫼스주의 문예론의 배격』 (1-6), 『중외일보』, 1927. 6. 18-23.

72) 한설야, 『무산문예가의 입장에서 김화산 군의 허구문예론, 관념적 당위론을 박함』 (1-8), 『중외일보』, 1927. 4. 15-26.

73) 임 화, 『착각적 문예이론-김화산 씨의 우론 검토』 (1-5), 『조선일보』, 1927. 9. 4-11

74) 아나키즘과 마르크시즘 논쟁의 전개 양상에 관해서는 김영민, 『한국근대문예비평사』, 한길사, 1994, pp.88-122 참조.

75) 무정부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충돌 양상에 관해서는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사상편』, 지식산업사, 2002, pp.225-227 참조.

몰락을 사랑한다. 우습기보다도 불쌍하게.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파악한 철학적 기초의 정체를 결국 객관과 주관과의 통일적 의의로부터 출발하지 아니 하고 다만 기계적으로 소썬루주아지적 의식의 정체를 여실하게 폭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다시 그들의 철학관의 이원적 자(者)-유물론과 유심론적 야합-이며 찢어서 소썬루주아지적 의식의 예증을 명백히 예술과 정치와의 관계에서 구명하지 안하면 안 된다.

그들은 『예술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과연 그럴가? 또 그러한 인식은 정당한가?

유물사관은 경제사관임과 동시 한 인생관이 될 수 있스며 세계관이며 철학관이다. 그것은 그 시대의 발생에 있어서의 사회적 가치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의 체계로써 관념까지 통제하는 것이다.⁷⁶⁾

이런 판국을 증빙하듯 장준석은 이향의 『예술의 일익적 임무를 위하여- 일부 예술운동을 평함』(『조선일보』, 1928. 2. 10-28)을 공격하였다. 이향은 원산청년회의 내분 사태에서 이주하, 김삼룡 등의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맞섰던 본능아연맹의 주동자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예술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목적의식을 강제한다고 비난하면서 “문학은 자기 보존 본능의 창조적 활동이며 맑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제 투쟁의 문학이 아니라 아나키즘 진파적(前派的) 경향을 가진 분산적 개인적 테토리즘의 예술”⁷⁷⁾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향은 “아나키즘문학론을 중심으로 현실을 파악했으며, 마르크스주의문학론에 적극적으로 대응”⁷⁸⁾한 인물로,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 내의 지분 확장을 도모하고자

76) 장준석, 「현계단에 있어 조선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실천적 임무는 무엇이나?」(10), 『중외일보』, 1928. 5. 28.

77) 이향, 「예술의 일익적 임무를 위하여- 일부 예술운동을 평함」, 『조선일보』, 1928. 2. 24.

논쟁을 일으킨 김화산과 구별된다.

이항에 대해서는 이미 민병회가 『아나키스트의 망론-이항 등 일파를 일축함 (1-2)』(『중외일보』, 1928. 3. 1-2)로 대꾸한 뒤였다. 장준석은 아나키스트들이 예술과 정치의 관계를 이원적으로 인식하여 현실사회의 계급적 성격을 승인하면서도 예술지상주의에 몰락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항을 ‘반동적 파벌귀’, ‘자유예술연맹의 대변자이며 이론대가’ 등으로 몰아 붙였다. 장준석의 비판은 1928년 2월 29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집행위원회가 자유예술연맹을 가리켜 “예술운동을 교란하려는 피등의 마수는 분명코 똑같은 선상에 있어서 우리가 사수하는 민족적 단일전선을 어김없이 교란시킨 것”⁷⁹⁾이라고 규정한 바의 확인 행위이다. 1928년 1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으로부터 제명된 아나키스트들이 조직한 조선자유예술연맹이니, 양자의 성명전은 필연코 당면할 사태였다. 아나키스트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면에는 사회운동의 패권 다툼 외에도 이념의 차이에 기인한다. 아나키즘과 마르크시즘은 생리적으로 동일조직 내에서 동서하기 힘들 뿐더러, 그 전례는 일본에서 벌어진 바 있다.⁸⁰⁾

셋째, 장준석은 ‘사이비적 무산계급 예술론’의 무리로 홍효민, 김영팔, 김

78) 전기철, 『한국현대문학비평입문』, 자유사상사, 1995, p.183.

79) 『조선일보』, 1928. 3. 11.

80) 일본의 아나·불 논쟁은 “일본사회주의동맹의 결성(1920. 12) 때부터 시작되어 전국 노동조합총연합 결성대회 와서 절정에 달하였다.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를 중심으로 한 아나코 생디칼리즘계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자치를 기초로 하는 자유연합의 조직을 취해 정당의 지도를 배제하려고 했던 것에 반하여, 불세비키즘계의 경우는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공산당의 지도와 결합하려고 했다. 이 대립은 1922년 비합법에 의한 공산당 결성을 계기로 대세가 후자로 기울기 시작하여 간도대지진 직후의 혼란 속에서 군부에 의해 오스기 사카에의 살해로 아나코 생디칼리즘의 지도층이 분해되어 그 후부터는 불세비키즘이 노동조합운동의 중심적 지도 이념으로 자리를 좁혀 가게 되었던 것이다.”(김채수, 『일본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문학』, 고려대출판부, 1997, p.225)

동환 등을 예거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방향전환론에 부정적이란 점이다. 장준석은 홍효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장준석의 홍효민에 대한 공격 화법은 이북만에게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둘이 홍효민의 「병상 잡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김영팔에게도 일정한 공격량을 보인 것이나, 이북만의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홍효민 선생』이라는 이름을 팔아가면서 작년 팔월에 먹은 오려 송편이 도로 넘어올만한 동화는 제발 그만 써주 십사 하고”⁸¹⁾ 사정하는 대목과 “동화집에 명백히 실린 바와 가티 영화잇는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중앙집행위원 선생』”⁸²⁾이라는 장준석의 회롱 등은 놀라우리만치 흡사하다. 따라서 발표된 시차를 고려하건대, 둘의 발언은 도쿄지부의 전략적 공세인 듯하다. 장준석은 그 후에도 “반동적 예술-썬루 예술, 아나키즘 예술, 사이버적 무산계급 예술의 철저적 말살이 필요”⁸³⁾하다고 거듭하여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정한 맑스주의자’ 홍효민에 대한 “비린내 나는 맑시스트”⁸⁴⁾ 장준석의 발언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도쿄지부 집행위원장이라는 직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27년 9월 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직 개편을 단행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은 김기진의 거세와 소장파의 약진으로 특징된다. 특히 신경향파 논의에 정제되었으면서도 프로레타리아문단의 권력을 장악한 국내파에 비해 날선 마르크스이론으로 무장한 도쿄 소장파의 등장은 충격이었다. 그들의 출현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정치기구화를 승인하는 것이었기에, 뒤이어 전개될 방향전환론의 향방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 상징적인

81) 이북만, 「소썬르조아의 난무에 대하여」, (2), 『중외일보』, 1928. 5. 1.

82) 장준석, 「현계단에 잇서 조선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실천적 임무는 무엇이나?」, (17), 『중외일보』, 1928. 6. 4.

83) 장준석, 「당면 임무의 수행」, (상), 『중외일보』, 1928. 7. 25.

84) 장준석, 「현계단에 잇서 조선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실천적 임무는 무엇이나?」, (16), 『중외일보』, 1928. 6. 3.

인물이 박영희였다. 김기진과의 소위 내용-형식 논쟁에서 어설프게 승리한 박영희는 지도부에 연명했으나 소장파에 포위된 형국이었다. 일본으로 돌아간 소장파는 박영희를 상대로 공격에 나섰다. 마침 1928년을 맞아 박영희는 「문예운동의 이론과 실제-과거 일년간에 전개된 제 문제의 간단한 귀결로서」(『조선지광』, 1928. 1), 「문예운동의 과거와 장래」(『조선일보』, 1928. 1. 1-8), 「문예운동의 과거 일년간의 과정」(『중외일보』, 1928. 1. 1)을 연달아 발표하였다. 장준석은 「문예운동의 이론과 실제는 여하히 귀결되었던가」(『조선지광』, 1928. 2)에서 박영희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 평문은 ‘박영희 씨의 절충주의적 태도를 비판함’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박영희의 예술운동에 대한 비판을 재비판한 것이다.

장준석의 박영희 비판은 이북만의 『예술운동의 방향전환은 과연 진정한 방향전환론이었는가?』(『예술운동』, 1927. 11)에 뒤이은 것이다. 이북만은 예술운동의 대중적 조직은 노동조합 등과 같은 조직이라고 보고,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이 그에 상응한 조직체라고 규정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은 신간회를 민족단일당으로 승인하고 “예술 영역 내의 대중의 정치적 사회적 자유를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그의 조직을 전민족적으로 하며 전피압박 계급적 견지에서 지도를 관철하는 것으로서 계급으로 하는 것”⁸⁵⁾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에 내재된 요체는 “문예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운동을 전체 민중의 문제로 확대하여 신간회가 이를 문제삼아 투쟁의 도화선을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적 활동”⁸⁶⁾이다. 그래서 이북만은 박영희처럼 문학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논자들을 제압할 여력이 생겼는 바, 박영희가 「문예운동의 이론과 실제」에서 신간회의

85) 이북만, 「예술운동의 방향전환은 과연 진정한 방향전환론이었는가?」, 『예술운동』, 1927. 11.

86)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p.155.

존재를 인정하고 이북만의 투쟁론을 수용한 것은 열세에 굴복한 것이다. 장준석은 이북만과 동일선상에서 박영희의 ‘절충주의적’ 태도를 반박하고 있다. 곧, 도쿄의 소장파들이 박영희를 거세하기 위해 ‘절충파’로 규정하고 행동을 개시한 증거이다. 이 평문은 워낙 삭제된 글자가 많아서 요체를 수거하기 힘들다, 장준석이 ‘씨와 우리와의 이론적 상이’를 거론하며 박영희를 공격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도쿄지부의 의견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준석은 최근까지 생존했던 전라북도 김제 출신의 비평가이다. 그는 도일 전부터 고향에서 청년단체, 사상단체, 소년단체, 유학생단체, 언론단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도쿄에서 일경에 피체된 후, 그는 비평가적 활약이나 공산당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두었다. 장준석은 1931년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뒤로는 관변인사를 자처하였다. 일례로 그는 한 신문사에서 식민지 전역의 지주들에게 만성적인 공민 구제책을 묻는 대상이 될 만큼 김제 지역의 소문난 지주였다.⁸⁷⁾ 그는 행동반경을 식민 당국의 정책에 순응하고 찬성하는 역할로 제한하고, 한국전쟁 후까지 은거하면서 평론 활동도 삼가고 이세교육에 투신하다가 생을 마쳤다.

장준석은 일본에서 신간회 도쿄지부와 조선공산당 일본본부의 간사,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도쿄지부의 집행위원장 등을 지내며 분주하였다.

87) 장준석, 「공민 구제 대책」, 『동아일보』, 1932. 7. 8.

그 무렵에 그의 평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념적 선명성과 적대의식은 그와 같은 공식적 직함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가 후원자 이북만과 유사한 비평적 논조를 견지했던 것에 주목하면, 조직원으로서 비평적 대상에 대한 연합 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는 줄 알 수 있다. 또 방향전환론을 즐기치게 주장한 장준석의 비평은 그것을 둘러싼 조선공산당(일본본부)과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도쿄지부)의 노선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란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북지역비평사에서 장준석의 자리는 이익상, 김창술, 김해강 등의 리얼리즘적 비평을 이어받아 1930년대의 윤규섭에게 연결시켜 준 지점에 놓인다.

본고는 출발선상부터 일정한 한계를 안고 출발하였다. 그 중 하나는 평론은 물론 소설을 포함하여 그가 발표했던 일체의 작품들을 수습하지 못한 채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장준석의 비평세계를 조감하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나머지 작품까지 건사한다면 논의의 폭이 훨씬 깊어졌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공산주의와 절연하게 된 전후사정, 해방 후의 행적을 명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두 가지 점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 자료가 추가되는 대로 부족한 논의를 계속하여 장준석의 비평적 세계를 마무리할 작정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장준석, 『방향전환기에 입각한 문예가의 직능』, 『개척』, 1927. 7.
 ———, 『10월혁명과 예술』, 『예술운동』 창간호, 1927. 11.
 ———, 『괴이한 문예론』 (1-6), 『조선일보』, 1928. 2. 7-12
 ———, 『문예운동의 이론과 실재는 여하히 귀결되었던가』, 『조선지광』, 1928. 2.
 ———, 『섬언자 일속을 논살함』 (1-4), 『중외일보』, 1928. 4. 8-11
 ———, 『신춘소감』, 『조선일보』, 1928. 4. 15
 ———, 『현재단에 잇서 조선 무산계급 예술운동의 실천적 임무는 무엇이나?』
 (1-19), 『중외일보』, 1928. 5. 18-6. 6
 ———, 『왜 우리는 작품을 쉽게 쓰지 안하면 안 되는가』, 『조선지광』, 1928. 5.

2. 단행본

- 강만길·성대경 편,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권영민, 『한국계급문학운동사』, 문예출판사, 1998.
 김영민, 『한국근대문예비평사』, 한길사, 1994.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92.
 ———, 『박영희연구』, 열음사, 1989.
 김채수, 『일본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문학』, 고려대출판부, 1997.
 동선희, 『식민 권력과 조선인 지역 유력자』, 선인, 2011.
 역사문제연구소 문학사연구모임, 『카프문학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4.
 운재윤제술문집간행위원회, 『운재선집』 (상), 성지사, 1989.
 이균영, 『신간희연구』, 역사비평사, 1996.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 사상편』, 지식산업사, 2002.
 임규찬 편, 『일본 프로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사, 1987.
 전기철, 『한국현대문학비평입문』, 자유사상사, 1995.
 전명혁, 『1920년대 한국 사회주의운동 연구』, 선인, 2006.
 최덕교 편, 『한국잡지백년』 1-3, 현암사, 2005.

Abstract

Jang Jun-seok's Life and World of Criticism

Choi, Myoung-Pyo

Jang Jun-seok(1903~1962) is a critic that is still known merely as one of the hardliners of KAPF, and even his life has not been clearly revealed yet. This article is to restore his biographic life and report it to the academic circles and als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his criticism. He was born in Gimje, Jeonrabuk-do and graduated from university in Japan. Before going abroad to study, he took an active part in youth groups in his hometown. He started to have keen interest in communism from his youth and worked actively in Tokyo calling himself 'a bloody Marxist'. But his activity as a critic was only limited to that period. Even that was concentrated in the period before or after the theory on the conversion of course, so it was even shorter. His criticisms included comments grounded on the theory of principle fitting his positions as an assistant administrator in the Tokyo branch of Singan-hoe or chairman of the executive committee in the Tokyo branch of KAPF. He pursued guidelines from the superior authority faithfully, set forth sharp counterarguments against those opposing to the theory on the conversion of course, and did his utmost to defeat the opponent. His opponents included not only anarchists but all the comrades in KAPF as well. As his logic represented the opinions of the junior faction in KAPF, it is good to examine hegemonic conflicts in KAPF then with it. Therefore, we may be able to conclude that Jang Junseok's criticism is characterized by consistency based on doctrinaire logic with no flexibility.

Key Word : Jang Jun-seok, KAPF, 'bloody Marxist', theory on the conversion of course, doctrinaire criticism

최명표

소속 : 전북대학교

주소 : (560-2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14 롯데@ 2동 1201호

전화번호 : 010-3652-4730

전자우편 : fool1222@chol.com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